故 공옥진 여사 악기 등 유품 공개

지난 9일 별세한 '1인 창무극' 공옥진 여사의 유품이 공개됐다.

영광군 영광읍 교촌리 예술연수소는 공 여사가 1981년부터 머물며 작품활동을 하고 후학을 길러낸 곳이다. 연수소내에는 외국 공연 당시 괜이나 외국의 작가들이 직접 찍어 보낸 사진들과 괜들이 직접 공 여사의 얼굴을 그려 넣은 달력과 액자도 함께 전시돼 있다.

2010년 6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한국의 명인명무전'에서 5년 만에 무대에 선 모습을 찍은 사진도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조카 손녀인 그룹 투애니원(2NE1) 공민지의 사진이 액자에 꽂혀 눈길을 끌었다. 제자들에게 '1인 창무극'을 가르치며 사용한 장구, 소고, 징 등 악기도 먼지가 쌓인 채 남아있다.

유품을 공개한 딸 김은희(64)씨는 "어머니가 예술 활동과 기록을 남길 기념관 건립을 원하셨다"며 "생전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펼친 연수소에 기념관을 건립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영광군과 영광문화원 등은 1인 창무극 관련 자료와 공여사의 유물, 기념품 등을 보관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을 추진 중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현재 기념관 건립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유족과 상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상기자 ischo@

'해방의 섬' 완도 소안서 '항일문화축제'

애국·애족·희생정신 본받아 항일역사 재조명
3개마을 2015년까지 365일 태극기 달기운동

'항일운동의 성지', '해방의 섬'으로 불리는 완도군 소안면에서 최근 '항일문화축제'가 열렸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항일 문화축제는 선열들의 애국·애족·희생정신을 본받아 항일역사를 재조명하고, 면민 정체성 회복을 통해 전국적인 행사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국회의원과 이진 완도부군수, 박성규 완도군의회 부의장, 양성진 완도경찰서장을 비롯한 주민과 관광객 등 4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진 완도 부군수는 축사를 통해 "조국의 광복을 위해 일제와 맞서 싸우다가 먼저 가신 애국 선열들의 뜻을 기리고, 위대한 항일정신과 희생을 지역발전과 화합의 정신적 밑거름으로 이어 나가자"고 말했다.

◇당사도 등대 습격사건 재현 눈길 = 제22회 소안 항일운동기념 추모행사와 제4회 소안항일 전국 학생문예백일장 대회는 '꿈을 이룬 소안 앞바다'와 '항일운동을 하신 선열들의 나라사랑'을 과제로 진행됐다. 또 월항리에서 열린 맨손 고기잡이 바다체험 행사는 관광객들로 부터 호응을 얻었다.

소안초등학교에서 개막식과 함께 열린 마을별 배구대회와 명랑운동회, 면민 노래자랑, 불꽃놀이는 면민과 관광객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었다.

특히 기미 독립만세를 주도한 유관순 열사를 배출하는 등 일제치하 항일운동을 전개했었던 인연으로 지난 2010년 자매결연을 맺은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365일 태극기 달기운동 전개=소안면은 3개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해 태극기 마을로 조성하고, 오는 2015년까지 전체 마을 집집마다 365일 태극기 달기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안면은 소안항 입구에서부터 달목 공원까지 1.3㎞에 이르는 '태극기 거리'를 조성키로 하고 최근 소안 항일성지 365 태극기거리 게양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소안항에서 달목공원 구간 도로를 항일 태극로 태극기게양식과 소안선열들 앞에 바치는 노래 낭송, 만세삼창으로 이어졌다.

심만섭 소안면장은 "항일투쟁의 열정을 불살랐던 선열들의 고귀한 뜻을 365일 기리고 태극기 선양사업을 통해 나라사랑 정신과 태극기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태극기거리를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안도는 함경도 북청, 경상도 동래와 함께 가장 치열한 항일투쟁을 전개한 3곳으로 일컬어지며,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송내호 등 20명이 독립유공자로 서훈을 받았다.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거문도·백도서 즐기는 은빛바다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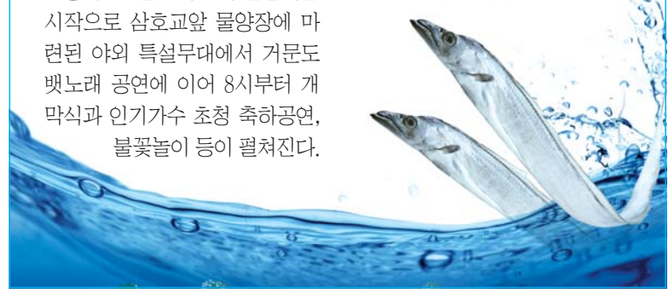
내달 3~5일까지

제12회 '거문도·백도 은빛 바다축제'가 8월 3일부터 5일까지 여수시 삼산면 거문도 일원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청정해역 특산물과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주제로 여수가 '세계 4대 미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는 3일 오후 7시 길놀이를 시작으로 삼호교앞 물양장에 마련된 야외 특설무대에서 거문도 뱃노래 공연에 이어 8시부터 개막식과 인기가수 초청 축하공연,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개막 2일째인 4일부터는 고기잡기 체험, 활어 맨손잡기, 전통떼배체험, 거문도해안 절경 투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며, 마지막 날인 5일에는 해군 홍보단 공연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축제기간 동안 은빛 갈치구이와 자리돔 물회 등 청정해역의 자연산 특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는 시식행사도 마련된다.

/동부취재본부=임문택기자 mtlim@



"100년만에 핀 소철꽃, 행운 가져다 드립니다"

최근 함평군 자연생태공원에 100년에 한 번 핀다는 소철꽃이 활짝 펴 노란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리는 소철은 '꽃을 본 사람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속설이 있어 많은 관람객이 찾고 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kwangju.co.kr

보성군 조성 농공단지 195억 투자 유치

보성군이 조성 농공단지에 19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보성군은 지난 26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정순남경제 부지사, 신명수 보성부군수, (주)엠지에미엔지와 굿피플(주)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주)엠지엠이엔지는 보성군 조성면 조성농공단지내 1만6093㎡ 부지에 100억원 을 투자해 설치용 금속탱크와 저장용기 제조 공장을 올해 완공할 계획이다.

또 굿피풀(주)는 조성면 신월리 일원 부지 9990㎡에 95억 원을 투자해 콩과 밀 등을 이용한 웰빙식품 곡물 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을 설립한다. 곡물 고기는 밀이나 양파 · 야채 등 순식물성 재료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동물성 고기의 대체식품이다.

군은 투자한 기업들이 공장건립 등 사업추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허가 처리 등 행정적인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민 190여명의 고용효과와 소득향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올해 7월말 현재 (주)보광 아이엔디 등 10개 기업과 962억원의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동부취재본부=김용백기자 kyb@

■ 새얼굴

"서로에 힘 되는 따뜻한 교도관 될 것"

박 현 조 순천교도소장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수용자 인권이 조화되는 교정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최근 부임한 박현조(59) 순천교도소장은 "공정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도 엄정한 법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 부어주는 한 바가지의 물을 의미하는 '마중물'처럼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따뜻한 교도관이 되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전북 김제 출신인 박 소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1981년 교정 간부로 입문한 뒤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장흥교도소장, 군산교도소장, 원주교도소장, 밀양구치소장, 진주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가족으로는 부인 양춘화씨와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전 북

매운갈비찜·복분자불고기·내장산 가마솥밥·산채전

정읍시 관광음식 4종 특허출원

정읍시가 내장산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정읍·내장산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음식 4종을 개발해 특허출원 중에 있다.

시는 사단법인 중소기업 혁신전략연구원에 의뢰해 음식을 개발, 내장산 상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식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정읍 매운갈비찜 ▲복분자불고기 ▲내장산 영양버섯해물 가마솥밥 ▲산채전을 대표음식으로 확정하고 특허출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음식은 정읍에서 생산되는 단풍미인 한우, 복분자, 버섯, 산나물 등 농·축산물을 이용한 것으로 정읍만의 특색 있고 차별화된 음식으로 평가된다. '정읍 매운갈비찜'은 정읍에서 생산된 한우갈비와 낙지가 조화된 갈비찜이며, '복분자 불고기'는 내장산에서 생산되는 복분자를 이용한 불고기이다.

'내장산 영양버섯 해물'은 내장산에서 나는 표고와 느타리 버섯 등을 활용해 해산물과 곁들인 가마솥밥이며, '산채전'은 내장산에서 자생하는 각종 산채를 활용한 전 요리로 내장산 산채 특유의 향을 느낄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무더위 날려버려요"

연일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최근 무주군 부남면 금강변에서 관광객들이 래프팅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순창군 21억 투입 '작은영화관'…내년말 개관

내년부터 순창군민들도 지역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된다.

순창군은 작은 영화관 조성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 내년 하반기 개관을 목표로 영화관 건립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특별교부세 확보는 군이 행정안전부를 수차례 오가며 작은영화관 조성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설명한 끝에 이뤄졌다.

작은영화관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1억원이다. 이 가운데 도비 3억5000만원·전북은행 영상장비지원 1억원은 확보됐으나 이를 제외한 사업비는 열악한 군재정 형편상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영화관은 옛 노인복지회관 부지에 50석 규모의 상영관 2개로 건립한다.

순창군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설계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초에 착공, 내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전북도교육청 내달까지 주민참여예산 위원 모집

전북도교육청은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8월 31일까지 15명을 모집한다. 이들은 분야별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고 조정한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를 마련한 데 이어 지난달 시행규칙을 공포했다.

도 교육청은 공개모집한 일반 주민과 분야별 전문가, 재정 전문가, 공무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등 30명 규모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해 내년 예산을 짤 계획이다.

도민 위원은 도내 14개 시·군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명씩 선정(전주시는 5명)한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시 융·복합 플라즈마 전초기지로

130억 투입 연구센터 이달말 완공…10월 개소
빔 연구동 등 상용화 연구 시설 2014년 확대

군산시가 세계 플라즈마(plasma) 연구 중심지로 도약한다.

군산시는 "국가 핵융합연구소의 플라즈마 상용화 연구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융·복합 플라즈마연구센터'를 3여 년의 공사 끝에 오는 7월말 완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완공되는 플라즈마 연구센터는 지난 2010년 3월에 군산 2국가산업 단지내 군산 물류지원센터 뒤 부지에 착공, 총사업비 130억 원을 투입해 본관 및 응용 연구동(4143㎡), 기숙사(2131㎡), 설비동(1270㎡) 등 총 3개동으로 조성됐다.

본관 및 응용 연구동에는 플라즈마 연구를 위한 각종 실험 및 장비 등 첨단연구 설비가 들어선다.

설비동은 공작실, 발전실 등이 들어서며, 기숙사동은 군산으로 이전하는 연구원들의 거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55실의 기숙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플라즈마 연구센터 내에 플라즈마 빔 연구동, 원천기술 연구동 등 플라즈마 상용화 연구를 위한 시설이 오는 2014년부터 추가로 확대 추진될 계획이다.

'플라즈마 연구센터'는 국가 핵융합 연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출범한 국가핵융합연구소 부설기관으로 지난 2009년 군산시와의 이전 협약으로 연구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센터는 연구센터 가동을 위한 장비 및 연구원 이전을 마무리하는 10월중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에 들어간다.

군산시 관계자는 "연구센터 건립으로 플라즈마 산업기술의 원천기술 제공력이 높아지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고용이 창출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즈마'는 초고온에서 음전하를 가진 전자와 양전하를 띤 이온으로 분리된 기체 상태를 의미하며, 에너지창출·신소재합성 및 가공·정보통신소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 사용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단신

군산시 '빗물받이 지역 책임관리제' 시행

군산시가 본격적인 집중호우에 대비해 읍·면·동별 '빗물받이 지역 책임관리제'를 시행한다.

시는 읍·면·동 인력과 이·통장 및 자생조직 등으로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 기상예보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빗물받이 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고무깔판 등 하수구 덮개와 빗물받이에 유입되는 쓰레기 및 각종 오물 등을 신속히 제거해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군산시는 올해 총사업비 36억 원을 투입해 나운, 문화동 등 11개 지역 하수관로 신설과 준설공사를 완료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

순창 '고추장의 과학과 가공기술' 우수학술도서

(재)순창군 발효미생물 관리센터 정도연 센터장의 저서인 '고추장의 과학과 가공기술'이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우수도서로 선정된 도서에 대해 30억원을 투입해 공공도서관, 해외 문화원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의 저서는 장류의 역사, 고추장의 원료, 제조기술, 발효관여 미생물 등에 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역작으로 이미 학계에서 학술적 기여도를 인정받고 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고창군 도세 부과 징수실적 평가 '우수'

고창군이 전북도 주관의 2012년 상반기 도세 부과 징수실적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돼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군은 올 상반기에 62억77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평가는 도세 징수율 증가(2011년 55억2800만원에서 2012년 62억7700만원으로 14% 증가)와 취득세 성실 신고율,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이뤄졌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취득세 자진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부안군 통합체육회 고사포해수욕장 환경정화

부안군 통합체육회는 최근 '제7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8월 10~13일) 개최를 앞두고 변산 고사포해수욕장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쳐 0.5t가량의 쓰레기와 해양 부유물 등을 수거했다.

고사포 해수욕장은 비치발리볼과 카누, 바다수영 등 경기가 열릴 예정이다.

부안군 통합체육회는 해양스포츠제전이 열리는 경기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